

# 이재명 “전국에 주택 총 311만호 신속히 공급”

경선 때보다 61만호 늘어나  
 수요 억제 현 정권과 차별화  
 수도권이 전체 중 82% 차지  
 반값아파트·LTV 확대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 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이어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기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약 25%나 늘어난 것으로,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완전히 차별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250만호 주택 공급을 공약한 것도 이 후보의 추가 공급 약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11만호 중 서울(107만호)과 경기·인천(151만호)이 약 82%를 차지하고 그외 지역(53만호)은 17%에 불과할 만큼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을 정면 겨냥했다.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김포공항 주변 ▷용산공원 일대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1호선 지하화 등을 통한 공공택지 개발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반값 아파트 ▷개인 선호와 부담능력에 맞는 맞춤형 주택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분량 30% 우선 배정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최대 90% 인정 등을 약속했다.

지난 21일부터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서울·경기를 순회 중인 이 후보는 공약 발표 전 즉석연설을 통해 “경기도는 저의 정치적 고향이다. 여러분은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으로 키워준 어머니 같은 분들”이라며 “경기도가 대선 가도의 무덤이라고 한다. 왜 무덤입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maeil.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평택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연박성 데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석열 “부모 육아 재택·건보정보 도용 방지”

국민공약 ‘연박성 데이’ 행사 개최  
 오토바이 안전·소방공무원 승진제  
 시민 제안 정책 4가지 토대로 발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 형태의 유연 근무제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모 육아 재택’ 제도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민공약 ‘연박성 데이’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4가지 공약은 시민들이 정책 공약을 직접 제안하는 ‘공약위키’에 올라온 아이디어 가운데 전문가와 청년보좌역들을 통해 실제 공약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30대 한의사 오현주 씨가 제안한 ‘부모 육아 재택 보장’ 공약은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기간 육아 재택근무를 선택하게 하고,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

화’ 공약(30대 회사원 신효섭 씨 제안)은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 공약(30대 개인회사 박기범 씨 제안)은 개인정보 불법 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QR 코드, 지문 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 확인시스템을 개발·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방공무원 사기충천 패키지’ 공약(30대 익명 남성 제안)은 내·외근 비율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 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로 승진 시 일정한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후보는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순환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육아 재택 문제도 정말 중요한 제도로, 재택근무가 적합하지 않은 성격의 근무인 경우에도 조금 더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제안들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1일 공개된 ‘윤석열 공약위키’(www.wikiyoon.com)에는 현재까지 1천500여 개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페이지뷰는 100만, 댓글은 3만개가 넘었다. 김은혜 공보단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쇼케이스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pyoya@maeil.com  
 강은경 기자 ekkang@maeil.com



## 안철수-이준석 단일화 두고 또다시 공방

安 “제가 당선되려 출마” 선긋기  
 李 “安 은종일 단일화 얘기” 응수  
 원희룡-이태규도 방송서 설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3일 단일화 이슈와 관련해 또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경상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당선되고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먼저 단일화 제의를 해 오면 응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대표(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반대하는 데 그럴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안 후보를 겨냥해 “간일화”(간을 보는 단일화) 언급을 하는 등

비판을 이어온 것을 꼬집은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즉각 응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일화 관심 없다는 분이 은종일 단일화 이야기만 하시는데 머릿속이 단일화로 가득한 것 같다”고 안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석달 쯤 뒤에는 서울 시장 나온다고 또 단일화하자고 하실 텐데, 그때도 단일화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과 국민의당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도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단일화 관련 공방을 벌였다.

원 본부장은 “추울 땀 난로가 필요했는데 지금 봄이 왔다”며 “과연 난로가 필요한지, 부채가 필요한지에 관해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했을 땐 ‘단일화’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한 현 상황에서 ‘자강론’에 무게를 실는 당내 기류도 적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원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추위질 수도 있으니 난로를 갖고 가진 가야 하는데 자꾸 난로 장수(안 후보 측)가 값을 너무 많이 부른단 말이죠”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윤 후보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단일후보 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한 경쟁력에선 안 후보가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라는 안정적인 전초기지를 구축한 것이고, 설 연휴에 이것이 확실히 확인되면 이를 기반으로 후보 등록 시점엔 20%를 뚫지 않겠나 예측한다”며 “이 경우 야권 전체에 대한 선거 주도권이 안 후보에게 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 “대선 지면 없는 죄로 감옥”李에 집중포화

“대장동 게이트 몸통 운명 예감”  
 국힘 인사들 잇단 비난 퍼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 지면 없는 죄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가 23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송파구 유세 중 즉석연설을 통해 “검찰 공화국의 공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라며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이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 국민을

상대로 ‘엄포 정치’를 하시려나 본데 염치가 좀 있으셨으면 한다”고 쓰아붙였다. 그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대장동 게이트 몸통으로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부지불식 간 그 진심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후보) 자신이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대통령 시켜달라는 생뿔뿔에 들리지 않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없는 죄도 만들어 반대 세력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선전포고로 들려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직격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도 논평

을 통해 “과거 이 후보의 경험에서 나온 ‘도둑이 제 발 저린 발언’이 아닌가”라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이 후보의 발언이 새삼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오히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과 원칙, 인권을 무시하는 무서운 세상이 옮겨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SNS에서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을 거론하며 “없는 죄 만들어 감옥 보낼 사람은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라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없는 죄 만들어 감옥에 보낼 분”이라며 “이재명이 당선되면 ‘친명대박(대우), 반명감옥’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per@maeil.com